

발행인 칼럼

가장 눈물겨운 꿈 : 대등한 고향

황 주 흥

전남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조국이 ‘공평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과 전라도 땅에 대해 공평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호남인들이 이 땅에서 ‘2등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호남 차별과 호남 낙후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라도도 수도권이나 영남지역처럼 함께 잘 살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위기를 알고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도는 타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광주·전남 소재 기업은 단 하나가 없습니다. 금년 초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20개가 넘는데, 그 중 30%가 전남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율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 전남입니다. 서울에 사는 우리 자식들은 자기 고향이 전라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가슴 아픈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하고, 입을 열어 “큰일이다. 이걸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주민들이 한 입으로 이 위기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둘째, 이 최악의 위기의 대부분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지역 차별적 역대 정권의 탓도 적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통령 한 명 배출해내지 못한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청도가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 현실을 정권 탓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대 고향이었던 우리 지역은 ‘짧은 농번기’와 ‘긴 농한기’구조 속에서 ‘농한기 체질’이 우리 호남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 다.

타 지역에 비해 더 타성적이고 덜 도전적이었던 탓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인 일인지 우리 지역은 한국의 과격주의와 투쟁가들의 보호막처럼 되어버 렸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 해 올 때 가장 기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각급 선거 후 선거법 고소·고발 건수에 있어서도 광주·전남 은 인구가 3배나 많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 지 역입니다. 남들은 덜 싸우고 더 일하는 데, 우리는 더 싸우고 덜 일하면서 조금씩 뒤처지게 되었습니 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향이 2등 지역이 되 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는 굳게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도자와 공무원들부터 하나가 되어 고향의 낙 후와 침체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 훨씬 더 분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등 시민, 꼴등 지역 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위기를 외면하는, 무사 안일한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경고하고 경질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의 각성으로 호남의 모든 공직

자들을 더 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 호남의 저 낙후와 차별입니다. 집안 싸움은 가난에 이르는 지름길입 니다. 싸움은 타 시·도에 맡겨야 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소외되고 가난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웃에게 악담이 아닌 덕담을 건넬 때 우리도 비로소 타 시·도와 대등해질 것입 니다.

더 일해야 합니다. 덜 싸우고 더 일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더 공부하는 수 밖에 없듯, 더 잘 살려면 더 일해야 합니다. 더 일해서 소득을 늘리 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관광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 서 정권도 가져오고, 장·차관 등의 요직에 진출도 더 시키고, 이 나라도 이끌어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사는 곳이 전라도라는 새 인 상을 심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지도 자부터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덜 싸우고 더 일하는 것, 이것이 호남 위기 극복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고 일 하고 또 일한다. 오직 그것 뿐이다.”입니다. 일하 고 일하고 또 일해서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는 우리 광주·전남을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들처럼 제대로 한번 바로 세워보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 이자 꿈입니다.

당원들의 활동 ‘활기’ 띠기 시작하다

지역위원회 활성화 차원... 매달 도당 당비 전면적 지원 효과

황주흥 위원장, ‘지역위원회 중심 도당 운영’ 공약 이행 성과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흥) 소속 각 지역위원회의 자체 기획사업과 공모사업, 당원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올들어 황주흥 위원장의 공약 1호인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 도당이 각 지역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도당 위원장 출마 공약으로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운영’을 약속했다. 당선 즉시 지역위원회에 당비 5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당선되자마자 공약 이행을 시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각 지역위는 도당 지원사업으로 △‘역사문화지킴이 나주시기’ 문화재 정화활동 △당

원과 함께 하는 포토클리닉(이상 나주·화순) △핵심 당직자 정책 간담회 △유달산 자연보호 캠페인(이상 목포) △불갑산 자연보호 캠페인 및 당원화합 등반대회(담양·함평·영광·장성) △이순신장군 리더십 특강(장흥·영암·강진) △묘목심기 및 자연보호 캠페인(여수갑) 등의 당원 역량강화 사업 및 당원화합 행사,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했다.

또 △바다의 날 해안정화 활동(광양·구례) △환경정화 활동(해남·진도·완도) △무안 남산-연중산 산책로 정화활동(무안·신안) △마늘수확 일손돕기 및 장기산 정화활동(고흥·보성) △당원역량 강화 특강 및 체육대회(여수) 등의 기획사업을 시행했다.

이밖에 ‘성(性) 인지 예산’ 제도 정착 및 사업발굴 워크숍, 여성당원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당원 교육 및

지역나눔 봉사활동,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강좌 등 일부 지역위원회의 여성당원 기획사업들은 중앙당 공모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위 활성화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 역량강화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권정당의 기초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순천지역위에 대해서도 당비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곡성은 지역위 지도부에 대한 지원을 이미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수를 박상영 사무국장은 “황주흥 위원장 취임 전에는 지역위에 대한 도당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황 위원장이 처음으로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지원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역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로당원 박래옥씨(함평)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도당의 지원은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큰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일을 독심있게 해 내는 황 위원장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박상천 상임고문 별세... 호남정계 큰 별 지다

영원한 명 대변인으로 한 시대 품미

박상천 상임고문이 지난 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의 빈소에는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은 13대, 14대, 15대, 16대, 18대 국회의원으로 5선 의원과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김대중정부 때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고흥 출신인 박 고문은 광주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투신해 고향인 고흥·보성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당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고 야당인 국민



회의 시절 두 차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시절 한 차례 모두 세 번에 걸쳐 원내총무(오늘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서울법대와 검사 임용 동기이자 정치입문(1988년 제13대 총선)도 나란히 한 박희태 전 의장과는 '숙명의 라이벌'이자 정치 역정의 동반자로 통한다.

두 사람이 여야 대변인 시절 촌철

살인의 글로 공방을 주고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정계은퇴도 같은 날 20분 간격으로 하게 됐다. 하지만 끝은 달랐다. 2012년 2월 9일 박 전 의장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을 사퇴했다. 박 전 대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퇴장' 의사를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금자씨와 딸 박유선(SBS)·민선(제일모직), 아들 태희씨(SK텔레콤), 사위 김용준(검사)·김용철씨(의사)가 있다.

주태문 도당 신임 사무처장 취임

전남도당 주태문 신임 사무처장(전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3일자로 취임했다.



주 신임 처장은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 새천년민주당 직능국장 겸 통합민주당 조직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중국 대련시 사회과학연구원 등의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 처장은 "황주홍 위원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진정한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춘단 강진군 의원,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서울 중랑갑)는 최근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에 강진군의회 문춘단 의원을, 센터 운영위원에 김인아 본지 편집위원을 임명했다.



여성리더십센터(소장 김유임 경기도의원)는 여성의 리더십강화, 교육훈련, 정치지도자 발굴 및 정치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기관이다.

혁신위, 7차 혁신안 발표

총선 10% 청년 공천 제안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의 10%를 45세 이하 청년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 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청년과 분권에 있다"며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에게 공천하는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를 제안했다.

여성당원 조직 강화 나서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핵심당원 워크숍 가져
도당 여성위원회, 영암기찬랜드서 자연정화 활동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핵심여성당원 워크숍이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됐다.

내년 총선승리와 2017 정권교체를 위한 여성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문재인 대표와 서영교 여성위원장, 박영선 의원, 윤명희 전남도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여성위원회 운영위원과 정옥남 전남도당 여성국장을 비롯한 시·도당 여성국장, 246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을 마치고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통과 참여 :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특



강에 이어 박영선 의원이 '여성정치 참여 확대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편 도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지방의원 등 핵심 여성당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기찬랜드 일원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논평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국민들은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이진투구를 벌이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삼성과 현대, 쌍용 등 다수 재벌도 마찬가지였다. 금호의 경우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때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정과제의 키워드를 '노동개혁'으로 삼아 구조개혁의 칼날을 노동계에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정서와 맞지 않아도 한 참을 못지 않는 '오발탄'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반기 4대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의지를 천명했으나 '쉬운 해고' 등 노동계 우려엔 답을 하지 않았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지주회사의 작은 지분만으로 법과 제도를 강그리 무시하고 인사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봉건적 족벌경영을 해오고 있다. 고작 0.05%의 지분을 천 창업주가 '손가락 지시' 한번으로 엄청난 수의 임직원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과거정부의 사면은 비난하면서 재벌의 사면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지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전남도당 대변인 홍지영

새누리당 또 성추문, 눈치보기 각본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에서 또 성추문 사건이 터졌다. 심학봉(구미갑) 의원이 그 당사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징계없이 '탈당'으로 무마하고, 경찰은 솜방망이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추문에 관대한 새누리당스러운 결론이고, 눈치보기 각본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열린던 시간 40대 여성을 호텔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여성인 '강제성' 여부의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다.

새누리당의 성추문 일지를 보면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내인 비하 성희롱 발언,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및 무마혐의 구속,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 성추행,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수행 중의 인턴 성폭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희롱, 김무성 대표 여기자 성추행 등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기 수사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반성과 재벌방지를 위해 '탈당'이 아닌 '출당'을, 심 의원은 의원직을 떠나길 바란다.

전남도당 대변인 김연일

도당 당사 이전 여부, 당원 여론조사로 결정

전남 국회의원 찬성 5명, 반대 4명, 입장 보류 1명

도의원 반대 76%, 찬성 24%... 도당 의견조사 결과

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무안에 있는 도당 당사 이전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엇갈린 반면, 전남 도의원들은 76%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 달 2일 서울에서 열린 전남 국회의원 정례 모임에서 당사 이전 문제를 조기 매듭짓기로 하고 이날부터 3일간 당 소속 국회의원 10명과 도의회 의원 51명에 대해 전화 및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남 국회의원들은 4명이 접근성이 좋은 광주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찬성한 반면, 1명은 광주로 이전 시 조건부 찬성을, 4명

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 1명은 “선 이전지역 결정 후 의견표명을 하겠다”며 입장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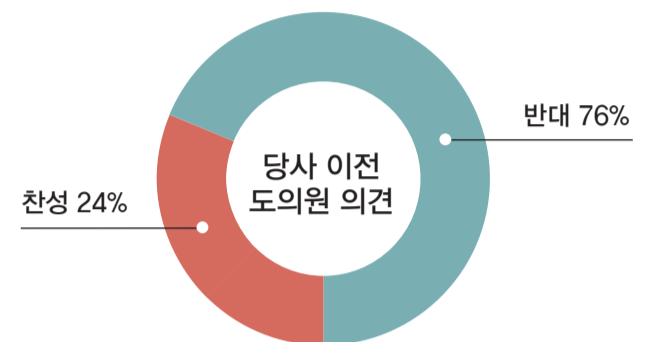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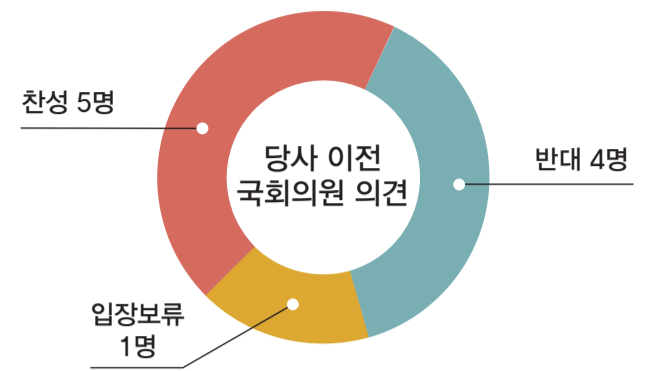
또 도의원 56명 가운데 당 소속 도의원 51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인 39명이 반대, 12명(24%)은 찬성했다.

현재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도당 당사는 그동안 전남 동부권 등의 당원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져 중부권역인 나주·화순 등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주홍 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전남 전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전을 추진기로 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도의원 과반이 반대의 뜻을 표명함에 따라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당원 여론조사로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여쭙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당원 여론조사 실시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무안군에 위치한 도당 당사 이전 문제는 당원 여론조사에 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현 당사는 2013년 6월 광주시 유동에서 무안으로 이전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 저서 광주 사인회 ‘대성황’

8일 광주 영풍문고... 국회의원·당원, 시·도민 1천여명 찾아



8일 열린 박영선 의원(구로울)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광주 영풍문고 사인회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울·전 원내대표)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광주 사인회가 지난 8일 오후 3시 광주 영풍문고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막을 내렸다.(사진)

사인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 시장, 황주홍 도당 위원장(장흥·영암·강진)과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광주서갑), 박지원(목포), 주승용(여수), 우윤근(광양·구례), 김승남(고흥·보성), 김영록(해남·완도·진도), 권은희(광주 광산), 강기정(광주북갑) 의원 등이 다녀갔다. 또 이용섭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서울),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도 들러 박영선 의원과 인사를 나

눴다.

박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많은 성원과 가르침을 주셨다”며 “더욱 잘해 강한 야당으로 거듭 나는데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누가 지도자인가’는 박 의원이 20여년의 기자 생활과 10여년의 정치인 생활을 거치면서 만난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뒷얘기를 담은 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대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 등 14명의 이야기가 실렸다.

박민건 민원국장

나주혁신산업단지 분양!

에너지밸리로 탄생하다!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500개 기업 유치 예정!

산업시설용지	206필지
자원시설용지	43필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단독주택	12필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혁신산단 (<http://www.najuinno.or.kr>)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최적지-

나주혁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합리적인
분양가

편리한
교통망

경영시너지
산업네트워크

분양문의
061) **336-9916**

전라남도
JeollaNamdo

나주시

나주혁신산단(주)

7·30 재·보선 당선, 신정훈·이개호 의원 의정활동 1년 성과

신정훈, 농업정책·제도개혁 의정성과로 주목받는 정치인
이개호, 원전안전 문제 쟁점화... 관료출신 전문성 돋보여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로 15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한 지 1년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리 라던 예상을 뒤엎고 개표결과는 새 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는 여 11석, 야 4석이었으나 파장은 엄청났다. 손학규 전 고문은 당시 재·보선(경기 수원병) 패배로 정계 은퇴선언을 한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여당의 불모지인 순천·곡성에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우리 당의 7·30 재·보선 당선자 4명은 신정훈(나주·화순),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광주의 권은희(광산을), 경기의 박광온(수원정) 의원이다.

본지는 전남도당 소속 신정훈, 이개호 두 의원의 의정활동 1년의 성과를 조명한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3월 당의 초대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비이삭 도열병 피해를 최초로 농업 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1년간 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주목받는 정치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이개호 의원 (담양·장성·영광·함평)

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광주·전남 유일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농어촌 지역구 사수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천 제도 혁신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나주와 화순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나주·화순 지역민과의 3대 약속인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힘있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원, 나주시장을 거쳐 중앙 정

치무대에 입성한 그가 '참신성'과 '열정'을 무기로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호남 정치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개호 의원은 등원과 함께 원내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지역 현안 및 지역 민심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예결위원을 맡아 추경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상임위에서는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의 실효성과 과학 기술 분야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을 보이며 온화한 소통의 정치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남 유일의 4개 군으로 구성된 지역구를 현장 중심으로 다지면서 민생현장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생투어 나서



노관규 전 순천시장(전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변호사)은 최근 서민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민생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여성장애인연대 순천지부 특강, 지난달 13일 낙안 오이 및 배 재배단지 낙과 피해현장 피해복구 돕기, 12일 순천 아랫시장 상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광진 의원, 순천 월등복숭아 판매 '성황'



김광진 의원(비례)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순천 농협과 함께 주최한 '순천 월등복숭아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준비된 복숭아 4.5t이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모두 판매되어 화제를 낳았다. 행사를 준비한 순천농협 관계자는 "농산물판매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물량을 판매하기는 처음이다"고 밝혔다.

황주홍·우윤근 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황주홍 의원, 영암·장흥·강진보고회 대성황...3천여명 참석

우윤근 의원, 광양 마을순회 의정보고회 2주일간 개최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최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0일 영암(군민회관)을 시작으로 12일 장흥(군민회관), 13일 강진(강진아트홀)에서 잇따라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13일 열린 강진보고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 김상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각급 사회단체 대표, 당원·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 또 장흥과 영암 보고회에도 각각 1천여명씩의 당원·군민이

참석하는 등 총 3천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지역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호남의 위기를 직시해야 하고, 위기의 대부분이 '내 탓'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제안하고 "군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최근 2주일동안 '마을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기능성화확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의 예산 확보 사항을 직접 보고했다.

우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국민안전처와 기재부를 설득해 광양읍 용강지구 진상면 회두지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32억 추경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청취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느 사업이나 예산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영록 의원, '희망 민생탐방' 실시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 14일 '희망 민생탐방, 군민께 듣겠습니다'는 주제로 완도군 소안면에서 의정보고회를 실시했다.(사진)



김 의원은 군민들의 진솔한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 16일 해남 송지면을 시작으로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남해안 철도 추경예산 반영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 검토 답변 등 자세하게 보고하지 못했던 의정활동 성과들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경청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신 부르기 쉬운 당명 지어달라" 제안



박지원 의원(목포)은 손혜원 홍보위원장에게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당명을 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홍보위원장의 당명 개정 제안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동의한다. 연설 대화 때 한창 하다 보면

누구나 ‘민주당’, ‘민주당’ 한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친신인 ‘민주당’으로 이미 등록된 원외 정당이 있으니 손 위원장께서 처음처럼 민주당명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주승용 의원,
민원상담의 날 상설화로 주민과의 소통 대폭 확대



주승용 의원(여수)은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던 지역주민과의 민원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상설화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민원상담 요구가 늘고 있어 매주 토요일 오

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원상담을 정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 의사일정과 중앙당 일정 이외의 거의 모든 주말은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와 소그룹 면담, 개인 상담에 할애하고 있으며, 매주 20여 팀 이상과 면담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
기획재정부 방문, 지역현안 예산확보 활동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지난 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송연석 예산실장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광양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예산실 소관 주무 과장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광양 지역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광양 출신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을 비롯한 기재부 내 출향 공직자 7~8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승남 의원,
국내산 재고쌀 133만톤 북한에 인도적 지원 촉구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3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국내 쌀 재고량을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활용하라”고 농식품부와 통일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월말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3만톤으로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면서 “가뭄과 식량난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쌀 재고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30만톤으로 전체 논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가뭄의 영향을 받아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의원,
완도 금일읍 다시마축제 방문, 주민 감사패 수상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일 완도 금일읍 해당화 해변에서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금일 다시마축제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감사패 수상 후 신우철 완도군수, 주민들과 어울려 다시마 시식 및 체험행사를 함께

하며 어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군은 다시마의 효능과 우수성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완도를 찾은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성곤 의원,
여수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 가시화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3일 “최근 ‘수난구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수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수난구호법’ 개정안 통과를 전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국민안전처 및 기획재정

부를 상대로 내년 국비사업 반영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양재난훈련센터’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설치를 옛 해양경찰청과 협의했으나,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예산심의의 통과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신정훈 의원,
7·30 재보선 당선 1주년 기자회견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선 1주년을 맞아 31일 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지난 1년이 본격적인 중앙정치에 대한 적응 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그동

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 등의 3대 약속을 실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당의 초대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된대 이어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개호 의원,
예결위 질의서 국정원 사찰의혹 등 추궁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회에서 국정원 사이버사찰 의혹을 추궁하고, 세입결손을 불러온 법인세 감면 환원과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북용으로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변명에 많은 국민들이 의

구심을 갖고 있다. 만일 내국인 사찰용이었다면 국기문란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감면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정짓고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환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
장흥 말산업 육성 간담회·마사회, 장흥군과 전국 첫 MOU 체결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지난달 23일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흥군 말산업 육성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말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김성 군수, 곽태수 군의회 의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이상영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사

회가 지자체와 MOU를 맺고 말산업 육성 업무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장흥군이 최초다. 황 의원은 지난 해 장흥승마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12억원(총사업비 48억)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장흥군과 마사회의 말산업 MOU 체결과 실무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
“원내수석직 사퇴...조직본부장직에 충실할 것”



최근 당 조직본부장에 임명된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지난달 28일 조직본부장직에 충실하기 위해 원내수석직에서 사실상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내수석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수석 권한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모두 위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혁신위가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대신 마련한 5대 본부장 중 조직본부장에 지난달 22일 선임됐으며 앞서 지난 5월 이춘석 의원과 공동원내수석에 지명된 바 있다.

“광양만권 제2의 도약 이루겠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지역발전, 정권교체 앞장

전남도당 소속 10개 지역위원회의 지역별 현황과 특성,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내용과 당직자 등을 소개합니다. ‘지역위원회 탐방’은 무순(無順)으로 연재합니다.

우윤근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권력구조 개편론자이다. 지난 5월 7일 이종걸 의원에게 새 원내대표 자리를 내주고 지역구 관리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평소 소신인 분권형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과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의 정치인생을 바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원내대표 재임 시절 여당과의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안을 합의처리 함으로써 온건 협상파이자 의회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또 지난해 말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하고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함으로써 ‘발목잡는 야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당내 강경파로부터 야성(野性)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세월호특별법에서 야당 주장을 상당 부분 관철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중단 위기에 몰렸던 무상보육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을 유지시키고, 자원 외교 국정조사도 성사시켰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야권의 신당·분당설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했다. 특히 경제와 대북정책, 인사 등에서 무면허 운전이 비유될 만큼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정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무능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 자성과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10년간 우리당은 세 차례나 분당과 합당을 되풀이했으나 결과는 큰 손실로 돌아왔다. 또 대권 후보 중심의 정치를 하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주요 유력 후보들이 여전히 당에 남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당은 험난하고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순회 의정보고회를 하고 계시는데 주요 활동 보고 내용은?

“2주일동안 마을을 순회하며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 뵙고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고 민심도 청취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에 지금까지 원내대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다. 또 광양만권의 제2의 도약이 기대되는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총 1,310억원)과 광양종합운동면허시험장 건립(160억원) 등을 이끌어낸 역대 최대규모의 예



우윤근 위원장과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직자들(좌로부터 이용재 도의원, 우윤근 위원장, 강정일 도의원)



우윤근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당직자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확보 내용 등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있다.

- 평소 권력구조 개편론을 주창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는 여당은 정부의 거수기나 앞잡이 노릇을, 야당은 투쟁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연정도 가능한 분권형 내각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여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를 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를 언제든지 퇴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중심에서 제도 중심의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정치입문 계기와 향후 정치적 포부는?

“과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독일·러시아·중국대사관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 직접적으로는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문희상 의원(전 비대위위원장)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정치 입문을 하게 됐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등은 인치(人治)가 아닌 제도에 의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받을만한 제도다. 선수(選數)에 연연하지 않지만 내년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정치적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포부다.

글·홍지영(대변인) | 사진·김인애(편집위원)



우윤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을 만나 광양시 현안사업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우윤근, 누구인가?



대화·협상 통한 ‘상생정치’ 실현 앞장
‘3+3회담’ 정례화... 정치현안 타결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내세우는 우윤근 의원(58)은 광양 출신으로 살레시오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거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석사(국제정치학)를, 전남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32기 합격 후 법무법인 유러(European & Russian) 대표변호사, 러시아와 독일, 중국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새로운 정치 실현의 뜻을 품고 정계에 입문해 광양·구례에서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위원장으로 일했고,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대표 시절 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이 모여 쟁점을 타결하는 ‘3+3회담’을 정례화해 굵직한 정치현안들을 합의처리하는 협상 실력을 보였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대표위원을 맡아 권력구조 개편에 매진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 구현에 노력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한계가 많았으며 분권형 내각제 개편을 역설하고 있다.

“농업은 사양산업 아닌 ‘미래산업’” 규모화·과학화로 기업농 신화 창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농사에서 땅과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옛말이 통용되던 과거 시대애나 어울리는 말이 됐다. 노동력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농사기법으로는 값싼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지금은 노동력이 아닌 첨단 농업장비와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수확을 올리는 첨단영농의 시대다.



조준성씨가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친환경 천연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논 50만평에서 무인헬기·광역방제기 이용 친환경농업 실천 육묘장, 비료공장, 건조·가공시설 완비한 종합영농회사 일궈

FTA파고에 맞서 고수익 올려

최근 국내에도 헬기와 광역방제기 등의 첨단 장비로 파종과 수확, 해충방제 등을 하는 첨단 농업과 규모의 영농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농도 전남에서 트랙터, 콤파인은 물론 말로만 듣던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한 대규모 친환경 농법으로 당당하게 FTA 파고에 맞서 고수익을 올리는 농업인이 있다.

화순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준성 대표(54·도당 농수산진흥특별위원장)가 그 주인공. 조 대표는 50여만평의 농지에서 벼농사와 토마토 재배를 통해 연간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농(巨農). 그의 성취는 어린 시절 한 쪽 팔을 잃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놀랍다. 가정형편으로 중 1때 자퇴 후 40여 년간 벼농사 외길을 걸어왔다. 농지는 대부분 남의 땅이다. 본인 소유 농지는 4만8천 평인데 비해 임대농지는 45만2천 평에 이른다. 임대농지는 조수익의 30%를 소유주에게 경작대가로 지불한다.

친환경 천연약제 방제효과 탁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유향 농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영농에 의한 수익창출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에도 앞장서고 있다. 할미꽃과 은행나무잎 추출물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친환경 약제이자 천연 비료다.

약제 살포를 위해 그는 2억원대의 무인헬기 1대와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했다. 헬기 방제는 노동력과 시간이 95% 이상 절감된다. 무인헬기는 지상 3~4m 상공에서 10μm정도의 입자 크기로 미세하게 살포되고 헬기 하향풍이 작물을 적당히 흔들어 쥐약제가 뿌리까지 깊숙이 살포되는 등 방제 효과가 탁월하다. 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왕우렁이 종패 살포도 가능하다.

조 대표의 영농법인은 헬기와 같은 첨단 장비 외에도 중대형 트랙터 8대, 이앙기 6대 등의 농기계와 정비시설까지 확보해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또 능주면에 6천평 규모의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해 비료공장, 육묘작업장, 벼 건조기와 정미시설, 양곡저장시설을 갖춰 생산-가공-판매 및 물류까지 완비한 종합 영농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을 만큼 농사일에 매진했다. 정부와 농어민단체에서 시상하는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돼 무료로 보내주는 해외여행도 바쁘



그의 성취는 어린 시절 농기계에 한 쪽 팔을 잃은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놀랍다.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지금까지 40여 년간 벼농사 외길을 걸어왔다

농사 일 때문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이런 ‘열정’ 때문에 수원농대에서 지난 1996년부터 6년간 현장교수로 초빙될 만큼 벼농사 전문가가 됐다. 그는 농업에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 “기반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농업은 힘들다”며 선부른 도전을 만류했다.

규모화·과학화가 농업 경쟁력의 열쇠

대형화와 과학화를 통해 부농의 꿈을 이룬 그는 막상 “자녀가 농사일을 물려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시간을 가질 수 없다. 단 하겠다는 꿈을 가지면 규모화, 대형화해서 더 크게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글·홍지영 대변인 | 사진·박민건 민원국장



대통령에게 받은 농업경영혁신 표창장

남악
시론

이기표
KBC 서울취재본부장

“

우리는 스스로에게 “당신은 정치가 싫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싫습니까?”라고 다시 물어보자. 우리가 가진 혐오가 ‘정치 혐오’인지 아니면 일부 ‘꼴뚜기 정치인’에 대한 혐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정치가 싫어요!”

대한민국은 ‘정치 혐오’ ‘국회 혐오’의 국가다. 무더위에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경제는 어렵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이 불안하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강남 집값은 자고 나면 억 소리를 내며 오르고.... 이때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의원님께서’ 대낮에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서도 ‘성완중 리스트’와 ‘막말파동’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혐오와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민들은 입을 열면, 특히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은 외친다. “나는 정치가 싫어요!”라고.

7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390명으로 늘리자고 말했다가 언론과 여론의 폭탄을 맞았다. 동아일보는 7월 31자 신문에서 ‘의원 1명 늘면 연간 7억 혈세’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1년 세비가 1억4700만원이고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등 총 7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든다고 국민감정에 호소하면서 의원 증원론에 못을 박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많은 정치학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현재 300명인 우리나라국회 규모가 OECD의 전체 평균으로는 510명, 의회민주주의가 성립된 유럽 국가평균으로는 997명으로 늘어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은 안하고 또 의원수를 늘려?”라는 국민정서에 밀려 제대로 토론이나 논의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당신은 정치가 싫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싫습니까?”라고 다시 물어보자. 우리가 가진 혐오가 ‘정치 혐오’인지 아니면 어물전 망신을 시키고 있는 일부 ‘꼴뚜기 정치인’에 대한 혐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정치 혐오’ ‘국회 혐오’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일은 안 하고 발목잡기나 하고 싸움만 한다’는 인식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국가이다.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검증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추진을 거들기 위해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공무원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혹은 감정적인 논리에 빠져 침 뱉으며 ‘국회 혐오’를 외칠 때 우리의 미래와 복지를 결정

할 중요한 문제가 몇몇 관료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국회 혐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잇을 만하면 뇌물과 막말 그리고 성폭력 성추행등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든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를 ‘더러워서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연히 정치나 국회가 싫다며 등을 돌리기보다는, 어느 의원이 ‘혈세 7억이나 챙기면서 밥값을 못하는지’ 오히려 찬찬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 싫다!”가 아니라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한 000 정치인이 싫다!”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내년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만들어진 ‘정치 혐오’의 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두 눈 부릅뜨고 우리지역의 지방의원,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를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한다. ‘꼴뚜기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우리가 가진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어느 정치인이 왜 싫습니까?”

당원
논단

주 선 중
진도군의회 의장

“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가 진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

소 등에 태워진 군의회 의장

농경문화를 이어 온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축은 소라 아닐 수 없다. 살아서는 농사일을 돕고 죽어서는 살과 뼈까지 주인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가니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인지 소와 관련된 속담이 많고 꿈속에도 자주 나온다.

재물을 상징한 소가 집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 한다. 소를 타고 가는 꿈을 꾸면 평안과 행운이 온다고도 해몽한다. 그래서인지 풍류를 아는 선인들은 말 대신 소를 타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한다. 유유자적한 농촌에서 소를 타고 유랑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주민과 함께 지내온 필자가 정년퇴직 후에 지역민의 심부름꾼이 됐고 진도군의회 의장이 된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가짐을 다듬어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필자도 60세가 돼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새로운 시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했다. 군의원이 되고 그 곳의 대표가 되는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 받게 됐다. 의장이 되고 보니 주변에서 바라본 시선 자체가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

다. 아니 내 마음 자체부터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됐다.

가야할 곳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 전화를 하는 시간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내가 필요한 통화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통화를 하다 보니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세상사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여론의 흐름도 감지하게 된다.

옛말에 며느리는 시집가서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꽃피는 청춘이요 어른으로 인정받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때인데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심정이 든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 집안을 튼튼히 세워가려는 경험에서 우려 나온 말이라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의장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와 질서유지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의장실에 나와 방문 민원인 접견과 현안사항 협의는 물론 문서결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림살이를 살피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과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인의 대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과 협상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들었거나 본 것도 못 듣고 보지 못한 것처럼 해야 하는 며느리 심정이 되어야 할 때가 많다.

씨름 천하장사가 상으로 받은 황소를 타고 가는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 석양에 소떼를 몰고 가면서 소를 타고 가는 목동의 심정은 얼마나 흡족할까? 이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기에 그 기쁨이 배가될 것이다. 선출직 지방의원 특히 의장은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을 갈아 주라는 주민들에 의해 쟁기와 함께 소 등에 태워졌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사명감과 책임감,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웃음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라 하겠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가 진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더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짐해 본다.

2015년 ‘강진 마케팅 원년의 해’ 선포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 4대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현안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4대 프로젝트의 현황과 추진현황을 점검합니다. /편집자 주

강진 오감통

뮤지션들의 신나는 콘서트와 신선한 로컬 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농촌지역에는 생소한 음악콘텐츠와 강진의 맛을 한데 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맛’과 ‘음악’으로 오감이 통한다는 뜻이다.

오감통은 강진읍 전통시장 맞은편 7,684㎡에 178억원을 투입, 현대화된 쇼핑몰과 함께 무명가수촌, 한정식체험관, 먹거리 타운, 야외무대 등을 갖추고 지난 4일 개장했다. 무명가수촌은 음악인이라면 누구든 공연과 연습, 숙식이 가능하며, 음반까지 제작, 발표할 수 있는 음향시설 등을 갖췄다. 먹거리 타운은 ‘맛의 1번지 강진’ 슬로건과 함께 한정식, 회춘탕, 토하비빔밥, 황칠오리, 보리밥 등 12가지 토속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군은 오감통을 다산 정약용이 기거했던 사의재와 영랑생가, 모란공원, 보은산 V랜드 등과 함께 강진읍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

지난 5월 23일 개장 후 5주간 매출 3억3천600만원을 달성했다. 마량은 남해안의 비경을 배경으로 한 미항이자 청정 수산물의 집산지로 알려졌지만 스쳐가는 지역이었을 뿐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다. 놀토 수산시장은 마량을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신선도와 품질, 저렴한 가격에서 최고를 내세우는 3최(最), 수입산, 바가지, 비브리오가 없는 3무(無)를 구호로 내세웠다. 생선회와 어패류, 건어물, 농특산물 등 7대 품목을 37곳의 점포에서 판매한다. 전복과 매생이, 갯벌낙지, 반건조생선 선물세트, 참고막은 시간대별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군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3최 3무’ 실천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보완하여 전국 최고의 수산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푸소(FU-SO) 체험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날린다(Feeling up,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서 관광객들이 요리사의 회뜨기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강진 오감통, 이색 농박(農泊) 체험 프로그램 ‘푸소(Fu-So)’ 등 4대 프로젝트 역점 사업으로 추진



푸소(Fu-So) 출정식과 초록마을 직거래 지원센터 개장식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농어촌 민박의 연계를 시도한 ‘푸소’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참여 농가들에게 감성여행대학 농어촌 체험과정을 통해 농촌관광, 친절교육, 맞춤형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

하 채취, 다슬기 잡기, 바지락 캐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보리 그슬림 등이다. 지금까지 강진중학생 92명이 지난 5월 말 신전면과 칠량면에서 첫 체험을 한 데 이어 다산 공직관 청렴교육 과정에 입교중인 대도시 공직자 26명이 지난달 3일 성전면 ‘달빛 한옥마을’에서 푸소를 통해 힐링과 함께 고향의 정을 만끽하고 돌아갔다. 푸소 문의는 문화관광과 061-430-3313.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131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직거래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강진읍 전통시장 옆 오감통에서 문을 열었다. 센터는 신선함과 신뢰, 신속함 등 3가지 약속을 뜻하는 ‘초록민음’을 타이틀로 내걸었다. 센터는 그동안 개별농가들이 실시해온 택배형 직거래를 선별, 포장, 운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품질은 물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강진은 현재 300여 농가에서 택배를 이용해 농특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역 총생산액의 35%인 200억원에 이른다. 센터 오픈과 함께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공포한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토대로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센터는 쇼핑몰 형태의 홈페이지와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용해 고객 데이터와 판매실적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거래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강진원 강진군수

“문화관광사업 성공 추진, 도농상생·지방자치 롤모델 제시 할 터”



“강진마케팅 원년의 해를 이끌어갈 4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산물로 이름이 높은 마량에 놀토 수산시장을 개장해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만든 데 이어 오감통, 푸소 체험 등 이색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잇따라 도입해 도농상생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강 군수는 스쳐가는 어항으로만 인식됐던 마량항의 관광 도시화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5대 먹거리와 살거리 등을 개발했다. 수산시장이 개장하면서 전보다 2~3배 이상 매출이 오르고 마량 외에 강진 전역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대구 청자촌과 가우도, 강진읍의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 등에도 덩달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푸소 체험에 대해 강 군수는 “1천만 농촌 관광객 시대를 맞아 턱없이 부족한 지역 내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인들이 시골에 머물며 힐링을 하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푸소 체험을 인성교육 및 현장 체험 학습과 연결시켜 지난달 15일 전남도교육청과 감성여행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체계적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주류에 반(反)하는 ‘주장’과 ‘꿈’의 정치로 일관

그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과 동교동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각별했다.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민당(평화민주당)이라는, 한국 사회의 비주류 표를 의식한 당 이름도 한 예다. 물론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비주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목과도 함수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비주류에 대한 김대중의 애정은 어디까지가 철학이고 어디까지가 계산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음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증언이다.

“노태우 정부 때 평민당에는 근로자·농민 등 소외계층 시위대가 잇따라 몰려들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짓눌려 온 노동자와 농민들의 요구가 일시에 폭발하면서 주로 야당 당사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때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짜증스럽게 말하면 DJ는 늘 “우리 당이 그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들을 생각해 주겠는가?”라며 나무랐다.”

비주류 정치의 한계

동교동의 인적 구성도 역사를 더듬어 보면 가정형편 학벌 경력 면에서 비주류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유복한 인사나 재력 있는 비서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운명적이다시피 비주류이었던 것이다. 둘째, 야당 안에서도, 여야 관계에서도 늘 비주류였기 때문에 선거전 경선 이견 이기기 위해서는 유격전 방식으로 싸웠다. 이것은 동교동 정치의 특징적 컬러의 하나다. 조직과 자금에서 철저한 열세였기 때문에 게릴라전 방식, 유언비어 흑색선전 매카시즘까지 동원해서 맞싸우는 식으로 승부를 벌이곤 했다.

게다가 합종연횡이 아니면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늘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승산에 도움이 되면 손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이 사업가로 출발했다는 특성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늘 ‘승산’과 ‘이득’을 기준으로 이철승과도, 김영삼과도, 김종필 박태준과도 손잡는 길을 택했다. 1997년의 DJP 공동정부 약속은 그런 비주류적 생존방식의 대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의식에 포위된, 지역구 의석 분포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구도에서 ‘소수 정부’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늘 ‘선비(士) 같은 문제의식(이상)’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집권기의 대북 햇볕정책에서 엿보이는 동교동 정치의 특징이라는 평가다.

소외계층을 지지기반으로… 색깔 공세 속에서도 ‘진보적 통일관’ 고수
승산과 이득 따져 ‘합종연횡’ 불사… DJP연합은 비주류적 생존방식의 대미

동교동 정치의 운명적 한계였다. 지역적 비주류 정권이라는 제약을 좀더 치밀하게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실패 원인이라는 지적이 한 때 동계동 내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다. 약속과 번복이 많은 ‘거짓말 정치’의 원형으로 비난받는 한 갈래의 원인도 비주류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거대권력 혹은 주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북이에 속아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간을 떼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지하실에 끌려가 자백각서도 쓰고 불출마선언도 하고 정계은퇴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동교동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단히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비주류들의 생존방식이었을 것이라는 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다.

DJ, ‘선비같은 문제의식’ 강조

동교동 정치의 또다른 특징은 사상적 지향성을 ‘진보혁신’ 쪽에 두었다는 점이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 초부터 4대국 안전보장론, 향토예비군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색깔 공세에 시달리던



DJP연합의 주인공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박태준씨.



1987년 대선에서 3위에 그친 평민당은 불과 4개월 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조선일보) (윗사진). 노동자 도시서민 중산층의 당을 표방한 평민당 지도부(아랫사진)

서도 DJ는 재야적 시국관, 진보적 통일관을 갖고 정치에 임했다. 그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와 상대 후보로부터 대통령선거 때마다 용공분자로 몰리는 빌미가 됐고 결국 집권기간 대북 ‘퍼주기’ 시비까지 낳는 원죄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국정치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것이 있다. 그는 ‘장사꾼 같은 현실인식’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선비 같은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후자가 바로 집권기의 대북 햇볕정책에서 엿보이는 동교동 정치의 특징일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반공 냉전적 주류 사회의식에 반하는 ‘주장’과 ‘꿈’으로 정치를 지속한 정치인도, 또 그런 정치인이 집권에 이른 예도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송승환 편집위원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전 어디까지 왔나?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현안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가 추진중인 경도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을 점검합니다. /편집자 주



여수 경도는 27홀 골프장과 100실 콘도미니엄, 자동차 야영장을 이미 개발했고, 운영중인 골프장의 경우 문체부가 예시한 '선택시설'에 포함돼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호남정치권, 유치 총력전 펼쳐

여수 김성곤·주승용 의원, 호남 의원들과 공동 대응

여수 경도, 기반시설 강점 지녀... 정부 '균형발전' 의지의 시금석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이 이 달 말로 다가왔다. 호남 유일의 후보지인 여수 경도는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친박 그룹의 유치운동 가세로 정치적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치운동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김성곤(여수갑)·주승용(여수을) 의원 등 여수를 지역구로 둔 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호남권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유치운동을 벌이는 등 호남 정치권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명 참여의원은 강동원 김관영 김광진 김동철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김춘진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신정훈 우윤근 유성엽 이개호 이윤석

임내현 장병완 전정희 주승용 황주홍 등이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호남권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약속 이행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대 경쟁지역인 부산,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친박 핵심인사 3명이 유치활동 전면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서병수 시장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힘을 보태고 있어 일찌감치 유력지역으로 분류됐다. 롯데 그룹이 북항에, 흥국계 자본 컨소시엄이 민락동에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천은 '친박' 핵심인 유정복 시장이 적극 유치활동에 나섰다. 경기도는 새누리당 서청원(경기 화성갑) 의원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유치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최근 선정 기준으로 '수요'와 '접근성'을 내세워 수도권에서 먼 전남은 막판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수요'와 '접근성'은 KTX와 남해안철도 등 SOC 투자에서 '호남 홀대'를 한 논리여서 이를 또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카지노가 들어선 곳에 중복설립을 할 것인지, 새로운 허가권을 내 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경쟁력은?

현재 갖춰진 인프라 충분

개발 관련 행정절차 불필요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

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여수엑스포특별법에 따라 27홀 골프장과 100실 콘도미니엄, 자동차 야영장을 개발했다. 골프장의 경우 문체부가 예시한 '선택시설'에 포함돼 있고, 이미 운영 중이어서 객관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65만 평 규모의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따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점도 강점이다.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완비돼 있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고 인근에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전용 부두가 있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여수와 순천만정원박람회장 등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 지역민도 나섰다

전남 동부권 3개 상공회의소 청원서 제출

이낙연 지사 휴가 하루 만에 4일 업무복귀

호남권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여수 경도에 유치하는 일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3개 도시 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지역민의 뜻을 모은 청원서를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동부권 3개 상공회의소는 청원서에서 "전국에 16개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며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등 관광 투자 활성화 대책과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 경쟁력을 갖춘 경도를 선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3일 휴가에 들어갔으나 하루 만인 4일 업무에 복귀해 중앙정부와 국회 요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합 리조트 사업 대상 지역에 경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휴가지만 복합 후보지 선정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지사가 지난달 31일 여수 경도리조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